

주임신부: 김대하 (요한 사도)
 본당회장: 권병학 (요한 사도)
 TEL: (905) 545-3004
 FAX: (905) 545-7895

사순 시기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마태 4,2)

미사 시간	
미사	주일 11시 (본당) 주일 17시 30분 (공소)
평일	매주(화) 20시
	매주(수) 11시
	매월 첫(목) 19시
성모 신심 미사 십자가의 길	매월 첫(토) 11시
성시간	매월 첫(목) 19시 미사 중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시 30분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시 30분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수요일 9시 30분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시 30분
사랑하을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시 30분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토) 10시
울드레야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2026년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본당 소식

◎ 전례 안내

- ▶ 2/22(일) 사순 제 1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 2/24(화) 사순 제 1 주간 화요일 미사 (20:00)
- ▶ 2/25(수) 사순 제 1 주간 수요일 미사 (11:00)
- ▶ 3/ 1(일) 사순 제 2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사순시기 성체조배

사순시기 동안 주일미사 20분 전부터 성체조배를 합니다.
 성전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19:30)

2/27 사목회 : 해설-박규혜, 십자가 복사-권병학,
 초복사-하태성, 김성수

3/6 꾸리아/바뇌 기도회 3/13 울드레야
 3/20 주일학교 자모회/성가대 3/27 복사단 4/ 3 구역장

◎ 사순시기 복음 필사

사순시기 동안 그날의 복음을 필사하여 구역장에게 제출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파스카 성야)에 구역별로 봉헌할 예정입니다.

◎ 성령 안수 예식

2/24(화) 20:00 미사 중 성령 안수 예식이 있습니다.

◎ 2025년 시니어 소득 신고

65세 이상 교우분들(공소포함)의 소득 신고를 위해
 이승우 리차드 형제가 수고해 주십니다.
 준비된 서류를 재정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방사용에 대한 공지

본당 주방 환기 설비에 관한 안전상의 문제로 당분간 기름을 사용한
 음식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밀턴 시청의 검열에 대비하여
 현재 시설분과에서 후드 청소를 마친 상태입니다.

◎ 나의 수호 성인 이야기

오늘 수호성인 이야기는 <성녀 스텔라>입니다.
 다음주는 <성녀 사라>입니다.

단체소식

◎ 은빛모임

3월 은빛모임(3/1)은 '쉽고 재미있는 성경퀴즈쇼'입니다.

◎ 사목회의

2/27(금) 십자가의 길 이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 구역장 월례회의

2월 구역장 월례회의가 3/1(일) 1시에 대철실에서
 있습니다.

공소 소식

◎ 재의 축복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

오늘(22일) 미사 중 진행합니다.

◎ 십자가의 길 안내(사순시기)

2/22, 3/1, 3/8, 3/15, 3/22 오후 4시 40분부터 시작 예정

◎ 공소 판공성사

3/8, 3/15 미사 시작 30분전부터

◎ 3월 축일자

3/30 김재근 조시모

친교식사 및 제대못

오늘은 가정주일로 친교식사가 없습니다.

3/1: 1 구역 3/8: 4 구역 3/15: 3 구역

구역 모임 소식

이달의 묵상 주제 (마태 4,1-11) '유혹'

1 구역: 2/28(토) 친교실 식사준비 후

7 구역: 2/28(토) 황미옥 레지나 17:30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63명)			
주일헌금	\$1,615	교무금	\$150
감사헌금		성전건립	\$660

사순절의 기도

이해인 수녀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항거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힘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3월 축일자 (7명)

- 3/7 테오필로(이정길)
- 3/12 세라피나(임선녀)
- 3/19 요셉 (정시안, 조용구, 조운형, 이인규)
- 3/25 그라시아(김경희)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2/ 22	권희진 요안나	이준규 안드레아, 최다희 보나	1 독서: 최아현 베로니카 2 독서: 최다혜 플로라	최다인 안나 이준우 바오로
3/ 1	김의수 안드레아	유세진 라파엘, 이준규 안드레아 고동연 미카엘, 이준우 제노	1 독서: 권희진 요안나 2 독서: 하유선 라파엘라	김한욱 에릭 채정희 올리비아
3/ 8	김성수 베드로	이지민 이사벨라, 이소민 그레이스	1 독서: 이인선 쟼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권희진 요안나 하유선 라파엘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김두진 가브리엘 신부
메리놀병원 기획처장

“유혹”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꺾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끈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 좋지 않은 길을 택하게 만들려는 “유혹”이 사순 제 1 주일 미사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입니다. 사십 일의 단식을 통해 하느님과 하나되는 체험 속에서 하느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 예수님께 이 유혹은 하느님에게로 향한 시선을 돌려 다른 쪽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예수님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라는 말씀으로 거부하시며, 하느님께로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속해서 걸어가려 하십니다.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고 길을 제대로 잡아 걸어가시려는 예수님께 두 번째 유혹이 다가옵니다. 바로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예수님은 오늘 복음의 장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내내 계속해서 받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니 세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신 앞에 있는 고난의 쓴 잔을 치워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으며, 그 마음으로 하느님에게로 다시 시선을 맞추고 계속해서 걸어가려 하십니다.

하지만 유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느님과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세 번째 유혹을 받으십니다. 하느님과 재물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예와 재물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하느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 분만을 섬겨라.”(마태 4,10)라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다잡으시며, 하느님에게로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사순 제 1 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난 길을 사십 일 동안 걸어 하느님에게로 다가가고자 하는 다짐을 합니다.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친다면 그 순간 우리 삶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찬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둔다면, 이 광야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 시기의 여정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부활의 길로 이어지는 여정이길 바라며, 유혹을 이기신 주님의 단호함과 굳건함을 청합니다. 아멘.



대 철 주 보

선포와 나눔의 해
2026 사목지침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사순 제 1 주일 (2026. 2. 22.)

제 1 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7-9; 3,1-7

화답송 시편 51(50),3-4,5-6 가.12-13,14 와 17(◎ 3 가 참조)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2-19

복음 환호송 마태 4,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11